

1946년 4월 창간 제 2776호

호남신문

ihonam@naver.com



2019년 9월 6일 (음력 8월 8일) 금요일

완도군, 태풍 '링링' 대비 비상체제 가동

긴급 점검회의 및 읍·면장 영상회의 개최

완도군은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함에 따라 4일 오전 신우철 군수 주재로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태풍 대비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읍·면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태풍 대비 준비상황을 보고 받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2010년 태풍 '곤파스'와 비슷한 경로로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으며, 강우와 강풍이 동반되는 만큼 시설 및 재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침수 우려 지역의 순찰활동 강화, 각종 취약 시설 점검, 어업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 결박과 시설물 정비 등을 빤틈없이 할 것을 지시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군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에 특히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의 안전을 챙겨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태풍의 강도가 비교적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찰 및 사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병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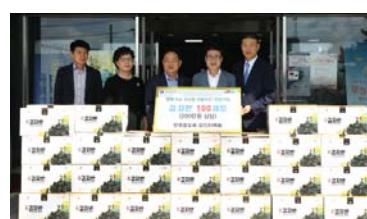


태풍 '링링' 피해 항구로 모인 선박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는 가운데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선박들이 피항해 있다. 기상청은 태풍이 7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부로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효도회 강진지역회, 홀로 사는 어르신 김자반세트 전달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회장 마삼섭)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강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김자반세트 100박스를 기탁하였다.

이번 나눔 행사는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외로움이 더해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정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추진하였다. 5일 이승옥 군수와 효도회원들이 함께 군청 현관에서 전달식을 가진 뒤 11개 읍·면 홀로 사는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하였다.

마삼섭 회장은 "명절이면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위로가 되었으면 한

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정을 느낄 수 있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군에서도 여민동락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는 2014년 1월 효정신 계승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김진=김영일 기자

나주시, 상반기 전기차 190대

이어 하반기 100대 추가보급

구매보조금 최대 1780만원…9일부터 신청 접수

나주시는 올해 전기차 290대 민간보급사업 예산 51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상반기 190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 1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달 제2차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9일부터 100대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1780만원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 인증 전기차종전소에 등재된 차종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먼저 제조·판매사(영업소, 지점)에 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509대 보급을 완료했다.

전기차 보급 증가 추세에 맞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충전 시설 인프라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빛가람전망대, 호수공원 등 74개소에 전기차 공용 충전기 215기(급속 51, 완속 164)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나주시의회,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등 11개소에 급속충전기 16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

11월 말 완공할 예정

화순군이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을 신축한다.

군은 올해로 개장(1996년) 20년 째인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노후 시설물을 새로 단장한다.

기존 '숲속의 집' 14개 동 중 1개 동을 철거하고 목조주택(1개 동, 73.25㎡)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9월 안에 신축 공사에 착수하고 11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용객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정밀 안전진단 등을 거쳐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산림 휴양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군은 해마다 '숲속의 집'을 1개 동 이상 신축할 계획이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북면에 위치하고 15개 동 21실을 운영 중이다. '숲속의 집'은 14동 14실, '숲속 수련원'은 1동 7실로 조성돼 있다.



편의 시설로 잔디광장, 운동 시설, 족구장, 정자가 있고 명산으로 손꼽히는 백아산 등산로와 연결돼 있다.

군 관계자는 "여가문화 확대로 기족 단위 휴양객들에게 사랑받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려한 경관과 백아산 하늘다리 등을 찾는 관광객과 휴양객이 편안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힐링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준철 기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